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 기 집

우 리 의 성 장 이
따 뜻 한 세 상 을
만 들 어 갑 니 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아산(峨山) 정주영

비전 |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적 | 리더십, 혁신적 사고와 경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전문가 육성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비영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기 발자취



2014. 05. 24. 면접 심사



2014. 06. 12. ~ 14.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14. 06. 18 ~ 11. 05. 교육과정 진행



2014. 11. 06 ~ 12. 01. 해외방문연구조사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기집

“미래를 향해 나아갈 자양분”

고현진

한국컴패션 과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지원하기 직전의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진해 가야 할지 막막했었다. 한 기관에서 8년째 일을 하다 보니 일은 익숙해졌지만 나의 인생과 커리어를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힘은 잃어갔고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 때로는 방향을 잃은 채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아가는 심정으로 일을 했던, 꽤나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을 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공고를 보게 되었고, 과연 이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알 수 없었으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혹시 합격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일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생각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알아갈수록 나 같은 상황에 놓인 중간관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뭔가 새로웠다. 면접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리엔테이션까지 이어졌다. 기존의 다른 교육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었고 나와 같이 현장의 업무에 지친 중간관리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오랫동안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내 인생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그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었다.



내 생각은 수업을 들으면서 더 명확해졌다. 사실 수업을 다 따라가기란 쉽지 않았지만 전략, 리더십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관리자로서 고민하고 있던 바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찾아 갈 수 있었고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의 수업을 통해서 비영리 분야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맛볼 수 있어서 더 큰 시각에서 비영리분야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교육과정 중 가장 핵심인 캡스톤은 나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었다. 캡스톤은 고정된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영리 경영 교육 모듈에서 배운 것을 다 쏟아 부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라고만 생각했지만 수업을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웠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방식을 돌아보고 사고의 깊이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수업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절대 녹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전 나의 마음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양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나의 목표를 되찾게 되었고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은 서투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얻은 자양분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조금 더 기대된다.



“배움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

곽연하

아름다운가게 국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지원하면서 나에겐 설렘이 있었다. 조직 속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된 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시기에 좀 더 체계적 이론과 기술로 훈련되는 나를 상상하는 설렘. 입학식과 워크샵, 여러 가지 모듈로 준비된 수업들, 교수님들의 개성 넘치는 수업에 적응하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수업이 끝나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어하시는 그 마음이 제일 크게 와 닿았던 시간들이었다. 어디서 그런 스승을 만나는 행운을 얻겠는가?

나는 영리와 비영리는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영리와 비영리의 영역은 서로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고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영리는 철저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영역이라고 한정 지었다. 그러나 이윤추구의 밑바탕에 세상의 변화와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철학이 담겨질 수 있음과 영리의 사업영역에서 활용되는 방법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결과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관점은 나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수업 중간중간 영리에 활용하는 이론에 우리 조직이 직면한 문제나 혹은 내가 직면한 문제를 대입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은 꽤 흥미로웠다. 그 고민에서 출발한 질문이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나에게는 꽤 가치 있는 교육의 시간이었다. 그 교육의 의미는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의미 없음’이라는 것과 사람을 향하는 가치는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인과의 타협점을 찾기에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캡스톤 수업 속에서 발견한 나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대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달성의 방향과는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 낮 뜨거워지는 경험이었다. 자기확신에만 차서 나의 주장을 펼칠 뿐 상대의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특히 그 강렬한 느낌은 팀의 리더가 되어 끌여갈 때보다 관찰자로 한발 떨어져 있을 때 더욱 다가왔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듣기보다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한 결론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배운 대로 논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가겠노라’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논의가 진행되면 그 생각은 사라지고 별 소득 없는 나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 지금까지의 캡스톤 수업이 맛보기였다면 그 맛보기를 자기 것으로 체화 하는 것이 캡스톤 수업의 이후 과제가 아닐까 한다.

함께 6개월을 동행한, 특히 같은 조 동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모두가 각자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곤 했다.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나 스스로를 도전하게 했던 동기도 있었고 때와 장소에 따라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팀원을 배려하는 동기도 있었다. 주어지는 역할에 따른 집중도는 달랐지만 그 자리, 자기가 규정한 자기만의 역할로 함께 팀을 끌어가면서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조 동기들.

6개월의 여정에 대한 기대는 뭔가 한 단계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목마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마무리 시간을 앞두고 보니 혼란스럽다. 나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 생각했던 이 시간들이 자꾸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자꾸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감사합니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실장

입학식에 이은 2박 3일간의 워크숍과 이그나이트 아산을 시작으로 마지막 수업에서의 감동의 비스킷까지... 지난 6개월의 대장정 동안 우리가 오직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신 아산나눔재단 스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정말 감동이었다. 특히 비스킷은 아까워서 못 먹을 뻔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가 컸다. 10년 이상 ‘장기기증’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 사회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던 차에 돌파구를 찾은 느낌이었다. 비영리 경영 모듈 그리고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과목 하나 하나가 꼭 나를 위해 준비된 과정 같았다. 이 과정만 끝나면 뭔가 대단한 역량을 발휘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내가 입학식에서 당당히 외친 말이 “一飛衝天, 一鳴驚人(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업적을 내는 것)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였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입학식에서 밝힌 포부만큼 나는 발전해 있는 걸까? 전혀 아닌 것 같다. 특히 캡스톤 마지막 시간에 김상범 교수님께서 “기관에 돌아가서 침묵하고 절제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신 이후로는 더 혼란스럽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수료식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다. 앞으로 비영리 분야에서 활동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다.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수료를 한다는 게 좀 쉽다. 6개월 더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혼자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끝으로 우리 29명 동기 모두에게 감사 드리고, 특별히 1조 참피온의 동기에 감사 드린다. 우리 조의 가상설립기관인 '비트원'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예비 상임이사이신 허수경 선생님, 배려와 섬김의 아이콘 박형채 선생님, 우리 조의 핵심브레인 정흥채 선생님과 고현진 선생님. 특히 해외방문연구조사에서의 고 선생님의 활약으로 우리 조가 유럽에서 좀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 드린다. 마지막으로 세심하고 꼼꼼하신 조영금 선생님.

여러분들 덕분에 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회, 행운, 압박 그리고 캡스톤”

김보경

사회복지법인 GO&DO 팀장

6개월 간의 고난스러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해외방문연구조사까지 마친 지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하니 ‘기회, 행운, 압박, 캡스톤’ 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른다.

아카데미 소개자료를 흥미롭게 읽어보고 지원서를 제출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6개월 동안 일과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 가정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교육 과정은 정말 도움이 될 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아카데미 수업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었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사회혁신, 리더십 모듈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강의하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마지막 해외기관방문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직접 접해 보고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각 모듈에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고 캡스톤 과정을 통해 동료들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나에 대해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실 아카데미 교육은 각 수업 내용도 만만치 않고 과제도 많은 편이라 소화하기 쉽지 않았다. 지원하게 된 동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기관방문 또한 마음 편한 여행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되었다. 현업의 일과 병행하는데 있어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배움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6개월의 힘든 과정을 지나 온 지금,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해 있다.

8년 동안 장애인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소진되던 시기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주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비영리 분야의 작은 리더로서 책임감도 다시 한번 갖게 하였다.

비영리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잘 따라올 수 있게 지원해 주신 교수진들과 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난 6개월 동안 배우고 느낀 만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내 자신에게 다짐해 본다.

“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과정을 마치며”

김선영

강서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이라 함께 해야 합니다

묵묵히 일하십시오

상대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항상 웃는 얼굴

남을 배려한 행동과 표정

현장 사람들과의 만남

지금까지의 메모리는 버려라

팔로우십

생각하기

상황을 품는 리더십

협업

누구를 위해, 왜 일하는가?-인류를 위해 일한다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창조와 혁신



큰 포부로 시작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사회복지현장의 현실로 얼룩진 마음과 한 걸음조차 내디딜 기운도 없을 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울고 웃고, 생각하고 행복해하며, 함께 했던 시간들을 양분으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현장에서 노력할 것이다.

작은 사람들이 대접받으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할 것이다.

어렵고 힘겨운 우리의 삶, 복지와 비영리 현장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힘이 난다.

함께했던 여러 선생님들, 아산나눔재단의 관계자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바쁜, 그리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

김재형

생명의숲 국민운동 팀장

1기 수강생인 지인의 SNS에서 처음 알게 되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첫 느낌은 ‘뭘 저렇게 힘들게 하지?’ 였다.

2기 모집의 공고가 뜨고 나에게 추천이 들어오며 많은 고민 끝에 ‘맡겨야 본전인데...’ 라는 생각으로 접수를 하였다.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기는 싫었기 때문에 지원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6개월 전 나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체계적인 교육 모듈과 전문성과 열정을 두루 갖추신 교수진들을 보며 ‘아! 이거 어설프게 참여해서는 내 것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수업 받는 분들과 교수진 등 사회복지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기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다들 배움의 열정이 가득하고 서로 의지하며 챙기는 동기들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항상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 1기 수료생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챙겨주시는 스태프들까지... 6개월 동안 기쁜 마음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조직구성원들과 비전과 미션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전략, 조직과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인적자원, 마케팅의 원리를 깨우치게 하는 마케팅·모금, 애매모호 했던 회계에 눈을 뜨게 만들어준 재무·회계, 나 자신부터 바로 지금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준 리더십, 열린 생각을 갖게 해준 사회혁신과 모든 것에 있어 최고의 시간이 되었던 캡스톤까지 엄청난 과정들을 통해 나 자신은 숲과 현장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지난 6개월은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교수님들과 동기들, 아산나눔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끝맺음의 자리에서 나는 웃는다”

김전호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참여는 ‘외부 자극에 의한 나의 성장과 내 주변에 미치는 나의 영향력 변화’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박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사람을 낚기자: 사회복지라는 옳은 일을 하는 동반자를 바르게 양성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결단력, 전문지식, 청렴과 강직, 경청과 소통, 조직 내외의 신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참가도 그 과정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시공간의 제한과 플랫폼은 소박했던 나의 참가 이유와 상관없이, 삶의 시간열차를 잠시 멈추게 하였다. 그 멈춤이 나의 선택이었던 만큼 그 결과는 상당히 가혹했다.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여 영향력을 재점검하라는 요구에 당황하고, 지식의 한계가 아닌 사고의 경직과 변화 유연성 부재를 체감해야 했다. 변화의 최종 대상은 나 자신이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 삶의 미션은 요원하다는 압박감에 2개월간 밤잠을 설쳐야 했다.

3개월쯤 지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기회를 통해 역량을 재정비하여 이 플랫폼에서 삶의 시간열차를 힘차게 출발시켜보자고 욕심을 내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며, 막대한 비용이 청구되었다. 작은 은혜라도 삼배로 갚아야 한다더니, 나 자신의 변화를 시작한 대가로 운영하고 있던 센터를 청산하라는 과업이 할당되었다. 3개월 내에 자활참여자, 직원, 시설과 각종 장비, 그리고



지난 12년의 센터 역사까지도 정리를 하란다. 그것도 모두가 행복한 방법으로 깔끔하게 말이다.

덜 숙성된 학습내용과 아직은 점성이 낮은 인연들, 그리고 겨우 틈이 생긴 사고를 창업이 아닌 ‘폐업’에 사용하라는 것은 어떠한 신의 뜻이 담겨있는 것일까? 그리고 보니 나는 늘 창업 아니면, 폐업 현장에 있었다. 창업보다 더디고 힘든 폐업. 돌이킬 시간이 없으니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다 짊어져야 한다. 인재양성이라는 내 삶의 미션을 위해서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라는 배움과 겸손이 더 필요했나 보다.

2014년 12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도 센터도 끝맺음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런데 자주 웃음이 나온다. 남들이 보면 좋은 일 있냐고 물을 만큼 웃고 다닌다.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웃는 게 진짜 웃는 게 아니지’하며 위로를 한다. 하지만, 나의 웃음은 진짜 웃음이다. 감사함의 웃음이다.

센터의 청산을 결정한 법인에 감사하다. 해고 예고통지를 받고도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나를 책임지는 리더로 세워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웃는다. 푸하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마치며”

남상수

한국컴패션 과장

작년에 인사팀에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아산나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냐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사회혁신, 리더십과 같이 내가 하는 IT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들로 채워져 있었다. 교육 후에 해외 연수도 보내준다는 내용에 잠시 고민을 하다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교육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팀에 있던 동료가 1기로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분을 통해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과 달리 전체의 과정이 아주 유익했다는 이야기를 대략 전해 들었다. 대략... 그게 문제였다. 좀 더 자세히 들어야 했는데, 대략 전해 들은 것이 나로 하여금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시간이 흘러 일상의 업무에 치여 정신 없을 즈음 인사팀에서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아산나눔재단에서 아카데미 2기를 모집하는데 관심이 있느냐고. 이미 호감을 갖고 있던 터라 일단 지원을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했다.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은 ‘IT 업무를 하는 내가 이 아카데미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였다. 고민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IT라는 지원부서에서 업무를 하지만 경영 부서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을 면접 때 교수님들께서 똑같이 물어보셨고, 다행히 미리 생각해둔 대로 말씀드릴 수 있었다. 사실 “IT를 하는데 이 아카데미에 왜 지원을 했냐”는 질문을 받으면서는 떨어지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합격을 하여 6개월간의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육 과정을 가볍게 생각했던 나는 오리엔테이션을 지나고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기로 아카데미를 수료한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들었던 것을 후회했다. 각 과목마다 제공되는 수업 내용은 생각보다 많았고, 길다고 생각했던 6개월은 오히려 6개월만에 이걸 다 배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짧았다. IT 업무를 하던 나에게 대부분 과목들이 생소했고 따라가기 쉽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캡스톤. 비영리 경영 모듈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녹여내야 하는 캡스톤이라는 과목은 단순히 녹여내는 수준을 넘어 매 수업마다 몸의 긴장감을 최고로 끌어올려 놓아야 했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얻은 것도 많았던 것 같다. 바쁜 업무시간을 쪼개가며 수업에 참여했던 일들, 과제를 하기 위해 밤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차지했던 시간들, 조별 과제를 위해 주말 새벽 미팅도 불사했던 날들, 교수님들 앞에서 과제 발표를 하기 위해 며칠을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짜던 순간들. 그 과정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했던 2기 분들과의 시간도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삶에서 직장에서 적용하며 잘 하는 일만 남았다.

“비영리 기관의 날개를 달고 고군분투하다”

박형채

잠실종합사회복지관 부장

두근두근 5월 지원신청서를 제출했던 기억을 지나 이제 12월 마무리 되어가는 즈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많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어 올 해는 행복한 연말이 될 것 같다.

비영리 분야의 리더, 너무도 큰 무게감에 장장 6개월에 이르는 교육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주경야독의 열정으로 가득한 비영리 분야의 실무자들을 만나고 이 분야의 전문 교수님 들께 강의를 듣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고 앞으로 내 생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롭다.

그 뿐만 아니라, 리더로 성장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르쳐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교육 시작부터 마침까지 함께 해 주신 아산나눔재단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드린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이러한 여운은 아마도 앞으로 내가 비영리 조직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실천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동력이 될 것이며, 이것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만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있다. 돌이켜 보면 비영리 기관의 실무자인 나에게 일에 더욱 주력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준 교육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역복지’라는 큰 가치를 가시화하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었고, 이러한 힘을 가지고 현업에 복귀해서 우리 조직 안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강구하고 대처하는데 교육받은 내용을 적용하고 활용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만난 모든 분들과 현장에서 다시 뵙길 기대한다.

고맙습니다.

“나와 조직을 깨워준 시간”

신보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대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도전’과 ‘발견’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수업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오리엔테이션 때 나를 소개하고 팀 도전과제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수업방식 자체가 신선했다. 팀원들과 가느다란 파스타면으로 에펠탑을 세우려던 순간이 떠오른다. 지금 생각나는 고민을 포스트잇에 적고 부루마블 게임을 하며 다른 이들이 내 고민을 해결해주던 시간도 기억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공간에 참여한 이들을 조화롭게 하고, 의견을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데 ‘수단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략 모듈은 내가 단체를 처음 창립하면서 썼던 단체의 목적, 비전, 가치가 참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이었으며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도 잘 담아내지 못했음을 절실히 느끼던 시간이었다. 유명한 비영리 기관의 미션을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 단체의 미션을 재정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았고 실제로 전략수업 때 배운 것을 활용해 우리 단체를 재정비하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다.

리더십 강의 중 젊은 리더들과의 만남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어린 나이에 단체를 일구고, 환경과 사람의 가치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열정을 보고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이루며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다.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사회혁신 모듈도 단체를 보다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리더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배움을 토대 삼아 나는 지금 구성원들과 함께 좀 더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비영리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 동안의 배움이 새 법인을 꾸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가상으로 새로운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보는 캡스톤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이었다. 평소 일을 도전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조장이라는 이름 아래서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원들을 태업으로 빠뜨리지는 않을까, 우리의 논의를 무리한 결론으로 도출해 나가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으로 나의 리더십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캡스톤 과정도 막바지에는 조원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단점보다는 강점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게 된 것 같다. 그러니 다시 ‘사람’이 보이게 되었다. 캡스톤 프로젝트의 전략적 리더십이란 결국 의견을 도출해가는 방법이기보다 모든 리더십은 사람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기존의 나를 변화하도록 일깨우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일깨워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만들 수 있었던 시간. 돌이켜보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높이뛰기의 구름판 같았던 곳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된 사람들”

안종권

아산사회복지재단 과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과정에 합격했다. 하지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해보겠다고 나선 건 나였는데, 막상 6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다. 업무가 밀리지는 않을까, 업무 때문에 수업이나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녁시간 수업을 들으며 졸지는 않을까. 그러나 과정을 마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언가에 재미를 느끼며 빠져본 것도 참 오랜만이였다'라는 생각이 든다.

비영리 조직이라는 테두리에 있으나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관심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모여 같은 목표를 두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리더십과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사회 혁신 등은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은 10년차 내외 직장인들에게 귀에 익으면서도 정작 '그게 뭔데?'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었지만 교수님들은 대치동 족집게 선생님의 언변을 능가하는 흡입력과 열정으로 졸 틈을 주지 않았다. 특히 캡스톤 수업은 시작부터 의문부호의 정점을 찍으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었고,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다. 고개가 가우뚱 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개가 끄덕여지는 수업으로 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여섯 명이 조를 이뤄 공통된 주제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교수님은 가슴 뛰는 주제를 택하라고 주문하셨지만 장년기를 지나 중년에 접어드는 이즈음에 방망이로 후려치듯 내 가슴을 두드리는 주제는 선뜻 다가오지 않았다. 내가 속한 조는 탈핵,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마을 등을 주제로 수업을 이어갔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는 나로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은 가지만, 실상 업무에 큰 연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해외 기관 방문을 다녀온 지금 생각해보면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 좋은 계기였다.

누군가 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동종과 이종 간의 만남’이라 표현했다. 이런 조합에서 수업만 잘 듣고 배워 가면 되겠지, 다른 것 배울게 뭐 있을까? 라는 의심은 접어두고 캡스톤 수업에 빠져보시길 바란다. 때론 리더로, 때론 관찰자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나의 모습도 보게 되고, 지금 속한 조직 속에서의 나를 돌아볼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수업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으며,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만났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이제 ‘우리’가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생각의 결을 다듬는 시간”

양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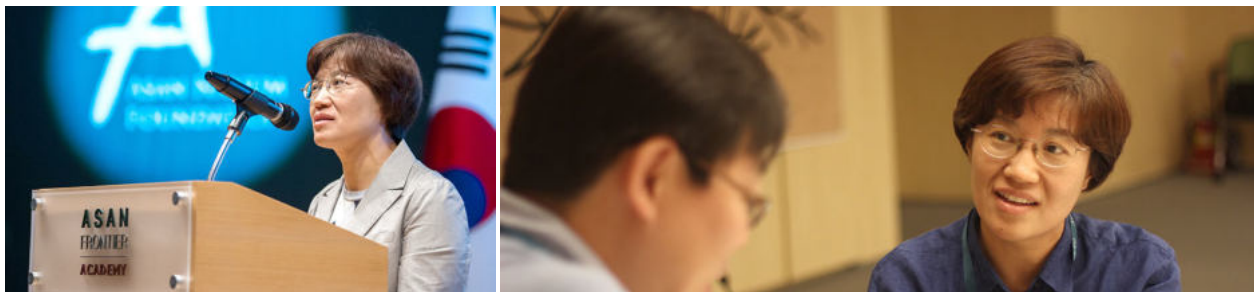
서울 YWCA 국장

공평한 시간, 불공평한 누림

6개월 전 아카데미의 문을 여는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정진홍 이사장님은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누리느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 바로 가슴 한가운데 새겨진 말씀은 교육에 참여하는 내내 나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래, 이 시간을 그냥, 마냥, 누리자. 이 시간에 오롯이 집중하자’는 다짐과 함께!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앞서 내 안에서는 항상 이런 질문이 맴돌았다.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고 하면서 과연 너는 얼마나 선하게 변했느냐’, ‘네가 하는 일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이바지했느냐’ 나는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고, 마침내 그 불편함이 마음 한가운데를 뚫고 튀어나올 무렵, 거절할 수 없는 선물처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다가왔다.

비로소 넓은 물이 보이는

그리고 6개월.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보면 끝이 없을 듯하다. 어디서든 배울 수 없었던 지식을 얻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들을 했고, 짧고 산만한 생각들이 집중되고 길어졌다. 다른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 눈을 마주보며 마음을 닿을 수 있었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얻었다. 리더십, 전략, 혁신처럼 늘 들어왔던 낱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다. 나는 어떤 활동가인지, 어떤 리더인지가 몹시 궁금해졌고, 그런 나를 들여다보면서 아프고 괴롭고 힘겹기도 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는 고은의 시처럼, 노를 놓친 줄도 모르고 노를 젓다가 문득 ‘아, 내가 노를 놓쳤구나’ 깨달았고, 내가 젓는 배가, 그 배가 다니는 물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캡스톤이 알려준 것, 겸손과 인내

캡스톤을 만난 건 내 삶에서 손꼽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캡스톤은 매우 자극적이고 도전적이었다. 내가 리더로서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사람인지를 민낯으로 들여다보게 해주었고, 리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합목적성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은 낮은 겸손과 순수한 호기심, 고요한 인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심한 몸살을 앓고 난 뒤 개운해진 몸처럼, 캡스톤을 마친 내 마음은 거센 파도에 넘실대다가 비로소 가라앉은 바다처럼 잔잔하다.

또 하나의 통과 의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개월은 통과 의례 같은 시간이었다. 비영리 활동가로서 앞으로 쭉쭉 내달리던 길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는 일과 일터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쁜 숨 고르게 내쉬는 시간. 덕분에 아카데미 이후 활동가로서의 나는 한 뼘쯤 자라고 두 뼘쯤 무르익고 있음을 느낀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진홍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내 생각의 결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고와지고 있다면, 그 바탕과 원동력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이다. 참 고맙다.



“디더보지 못한 길목에서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매우 바쁜 일정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일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 경영의 갈급함이 있었기에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비영리 기관의 경영에 있어 현장 중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 곧 우리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단체는 최근 자립과 성장을 경험했다. 그와 함께 단체는 꾸준히 나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했고 나 또한 비영리 단체의 올바른 경영과 리더십에 대한 한계에 봉착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속전 속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했다. 당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고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한 걸음을 딛기 전에 선택 하나하나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더군다나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에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생기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영리 기관 경영과 방향성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 큰 숙제였다.



아카데미는 이런 상황에 봉착한 나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먼저 캡스톤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했다. 이것은 작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한 큰 공동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 주었고, 반대·옹호·거절·태업·찬동·지지 등 매몰된 시각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인간관계의 모습들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궁극적으로는 안개 속 구름이 서서히 걷히듯 한발 한발을 디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불어 넣어 주었다.

이제 반 년의 시간을 보내고 아카데미를 수료하지만 ‘수료’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작’이며 ‘도전’의 출발선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단체의 목표와 실천적 과제들을 보다 흥미롭게 세우고 있다. 비전과 전략으로 이끄는 조직으로 재구성하게 되니 이전보다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다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 교육 이후, 관련 단체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아동복지 영역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범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얻게 되었고 아동복지의 새 지평을 열 준비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무쪼록 배움의 사고를 넓혀주신 교수님들과 배움의 기회와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 준 아산나눔재단, 그리고 섬김의 본으로 늘 곁에 있어주신 스태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나에게 있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소진에서의 회복이자 편협을 극복하게 하는 즐거운 도전이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인숙
어린양의 집 사무국장

지난 6개월의 시간, 참으로 쉽 없이 달려온 듯 한 느낌이다. 산을 오를 때처럼 헉헉거리며 나는 6개월의 시간을 정신 없이 달려왔다. 14년동안 몸 담았던 직장에서의 이직과 함께 관리자라는 자리에 오를수록 변화되지 않은 조직과 직원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조직의 구조 속에서 나름대로 힘이 들어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고, 이와 맞물려 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면접 날, 병상에 계시는 엄마를 보면서 아카데미에 참여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모습은 걱정 말고 다녀오라는 듯 했다. 그 다음날 엄마는 결국 나의 곁을 떠나셨지만, 떠나시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마지막 남긴 선물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직한 직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에게 매주 수요일 일정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다. 수업이 있는 날은 이른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이후 3시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며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또 다른 약속이었다.

“힘들면 빠지면 되지 않나” 하는 지인의 물음에, “나로 인해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터인데, 그 분들을 생각하며 다닌다”라고 했던 것 같다. 그만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도전’이고 ‘약속’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다. 최강의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 그것들을 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기들의 배움의 자세, 운영진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이러한 과정들이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라는 말처럼 아카데미 교육을 들으면서 오늘도 나는 조직의 발전을 위한 변화를 고민한다. 아직 뽀족한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운 모듈들을 근간으로 하여 나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가끔 멈춰 서서 노세요, 내 발이 페달에 닿아 있는지? 가슴 뛰는 꿈을 위해...”

이종익

청예단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저 지금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초심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면접 때 나의 간절함이었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며 삽니다. 진정한 고향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 아닐까요? 전 지금 행복합니다. 아직 어머니가 고향에 살고 계시니까요.”

첫 만남, 아산 이그나이트 발표 때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자기소개로 근본적 초심으로 가고 싶었다.

“가끔 멈춰 서서 노세요. 내 발이 페달에 닿아 있는지? 멈춰야 되는데 질주하는 건 아닌지?”
정진홍 이사장님의 첫 강의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자전거 이야기 역시나 초심을 말씀하고 계셨다.

면접에 이어 첫 만남의 설렘... 2014년 하반기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자신을 채웠다. 유난히도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 이어서인지 더 큰 뿌듯함이 있다. 첫 자기소개 때 고향 어머니의 주제로 울컥하기도 했었고, 이사장님의 말씀에 진정성을 가슴에 품었고, 리더십 모듈을 통해 위로를 받고, 비영리 경영 모듈을 통해 지식을 채우고 자신감을 얻었다. 해외방문연구조사는



힘들기도 했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꽃이라 할 만큼 유익했고, 동기생들의 소중함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혹시 조직을 통하여 무엇이 변화 했는가 보다 생존 자체가 목적 아닌가요? 지금 이것이 가슴 뛰는 일인가요? 라는 교수님의 한 마디에 자신을 반추하기도 하며, ‘상황을 품는 능력’ 이라는 한 마디에 해법을 찾은 듯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밤새 고민하며 컴퓨터에 앉아 새벽 동터움을 보며 비영리 조직 활동가로서의 힘들음을 토로하며 글로써 눈물겨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처음엔 설렘이었고, 과정은 힘들이었으며 지금은 가슴 뛰는 꿈을 안겨 주었다.

가슴 뛰는 꿈! 처음부터 가슴 뛰는 꿈은 없다. 작은 꿈을 만나 가슴 뛰는 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작은 꿈의 만남은 여기 아산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며 그 열정이고, 나를 초심으로 다시 돌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나아가면서 길을 만듭니다”

이진승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사무국장

교육이 끝나는 이 시점에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든다. ‘기쁘다’라는 생각은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이며, ‘아쉽다’라는 생각은 내 자신이 더욱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 때문이다.

복지현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렇기에 길을 찾아내고 순간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과제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문제를 알아야 정답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상황을 볼 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일’과 ‘사람’을 나누어 생각하는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문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으로 목적을 생각하고 수행해야 할 과제의 계획을 세우며 사람의 태도와 관계를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내가 좋아하는 문구 중 호세 마리아 신부가 이야기한 “우리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아가면서 길을 만듭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처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프론티어’가 의미하는 바처럼 나아가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훌륭한 교육의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의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그 동안 부족한 저희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스텝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나를 찾아 가는 행복한 시간들...”

임복희

대전카리타스 사무국장

따스한 4월의 어느 봄날, 기관의 회장신부님께서 파일 하나를 주시면서 참 좋은 교육이 있는데 앞으로 도움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라며 ‘강제사항’이라고 하셨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 무엇을 배우는 교육일까? 신청해야 하나? 서울까지 어떻게 다니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용기를 내어 ‘그래 새로운 도전이다. 이 기회가 재충전을 해야 하는 나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면접을 보고 합격통지를 기쁘게 받았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입학식에 참석하면서 내 자신과의 약속을 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각 조퇴 없이 100% 출석을 해야겠다. 오리엔테이션 날 정진홍 이사장님의 말씀 중 “왜 존재 하느냐,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난 무엇을 배워 갈 것인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리더인가? 항상 고민하던 나에게 방대욱 이사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리더십이란 나를 찾아 가는 길이고 내려 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한 주, 또 한 주 수업이 진행될수록 차츰 캡스톤이라는 낯선 수업은 토론문화 세대가 아닌 나에게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새벽까지 리플렉션 메모를 작성하는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점차 부담 없이 즐겁게 수요일을 기다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캡스톤 과정에서 가상으로 설립할 기관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하고 조금씩 서로를 맞춰가고 이해하며 정들어진 우리 NG5조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교육과정의 마무리인 해외방문연구조사는 나에게 커다란 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하면 걸음마 정도라고 느꼈지만 그 국가들처럼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역시 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차세대 리더들을 통하여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도 해보게 되었다.

모든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김상범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근무하는 기관에서 더 잘 듣고 더 많은 질문을 하며 조직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묵묵히 할 일을 하세요” 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는 내 자신과의 첫 약속을 잘 지켰고, 나를 성장하면서 찾아가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정말 커다란 행복이었다. 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참 고맙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장원종
사랑의복지재단 부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과정 수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입학식 때의 다짐에 대한 울림을 이 글을 쓰는 지금 다시 되새기게 된다.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며 시작한 약 6개월의 과정을 뒤돌아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제자’로 서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니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는 답을 할 수 없었다. 기관의 업무와 가정의 돌봄에 대한 이유들을 핑계로 내가 다짐했던 첫 마음이 수료하는 날까지 일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똑같은 한 학기, 공평한 시간 배분, 그렇지만 사람들에 따라 불평등한 시간을 누립니다” 는 정진홍 이사장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적용되었음을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비영리 조직의 경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비영리 조직의 경영에 관심을 갖고 실천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만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7년의 시간을 비영리 조직에 몸을 담고 일해오고 있지만, 비영리 조직의 경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과 기관이 없어 참 힘들고 어려웠다.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도 이러한 갈증을 풀어보고자 했으나 역시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을 손꼽아 기다려 지원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합격하였고 배움을 통해 많은 갈증을 풀 수 있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에 글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싶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정직과 성실만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정진홍 이사장님의 말씀에서부터 이봉주 교수님의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대한 강의와 성과측정, 감동적인 리더십,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가 없다는 충격적인 전략, 인적자원에 대한 따뜻한 강의,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다 준 마케팅·모금 강의, 족집게 과외 같던 재무·회계, 그리고 팀을 구성해 치열하게 싸우고 집단의 역동성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 탁월한 캡스톤 수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아카데미 수업은 이러한 나의 배움에 대한 목표와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강의를 다시 듣고 싶을 만큼 훌륭했기에 결코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배운 것을 우리 기관에 어떻게 적용하며 직원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 봤던 유일한 교육과정이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배운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적용하고 실천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하진 못했지만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는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과정이 큰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분명하다. 배운 내용을 상기하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서 내 몸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배움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정진홍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더 낮아져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좋은 제자’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끝으로 정진홍 이사장님과 이봉주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너무나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던 아산나눔재단과 스태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출발선을 그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실장

정신 없는 하루 일상, 출근하자마자 물밀 듯이 밀려오는 결재, 수많은 사업과 조직 속에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잘못된 선택과 방법이 조직과 직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최종결정권자를 제대로 보필하는 걸까? 최근 자주, 아니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렇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뒤에 생긴 나의 작은 변화이다. 캡스톤 마지막 수업에서 소회를 밝혔지만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솔직히 예전에는 무모하리만큼 겁이 없었다. 일과 조직에 대한 몰입감은 나를 자만하게 만들고, 타인의 말과 행동은 무지에서 나온 소치로 결론 내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몸서리가 칠 정도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럼 지금은 달라진 건가? 정말 거듭난 건가? 그건 아닌 듯하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다시 일상에 매몰되는 순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함께한 모든 경험이 꿈같이 느껴지고 신기루처럼 사라진 듯 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의 깨달음만큼은 아니겠지만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만이 자기세상이고 그 자기세상의 그림자 속에서만 세상사를 보고 느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이고 이전에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다.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 이라는 것이



단지 좋은 판단력과 포용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기성찰이 밑바탕이 되지 않은 그 모든 말과 행동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걸,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오직 자신이 준비되어있는 자가 되기 위한 자세와 과정이다. 나의 경험을 넘어선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성찰,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이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매 순간마다 의식적인 자각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말 좋은 것은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 이전에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과 매너리즘이 한방에 떨쳐진 느낌 그 자체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 준 교육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 감사하다. 또 다른 나의 출발선을 그어준 교수진들,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함께 수료한 우리 2기 동문에게도 진심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다시 되돌아간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지향해야 할 좌표들이 보이는 듯하다. 그 좌표 또한 불안정하기 그지없지만 희미한 불빛이나마 목표와 좌표가 있는 이상 어디든 못 갈까? 이제 전진만 남을 뿐이다. 우리 함께 가시죠?^^



“수요일의 여자”

정지은
인천문화재단 과장

“수요일만 빼고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내 일정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 수요일은 그렇게 나에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업 중간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에서 공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스태프들 덕에 편하기 그지없었다. 물론 그 수요일이 늘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질을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10시 반 가까이 되어서야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훌쩍 넘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힘든 티를 내기도 쉽지 않았다.

사실 첫 워크샵에서부터 이미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약간의 문화 충격이라고나 할까? 30명의 사람 중 문화 영역은 나 혼자. 생각보다 이질감은 더 컸고 생경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덜 성장해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논의를 진행할수록 내가 논의를 하는 그 내용보다 논의를 하러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에만 매몰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이 논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 따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대신 그 논의자리에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니었나 싶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더 신경이 쓰였다. 캡스톤 수업을 들을 때마다 리플렉션 메모를 작성할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것밖에 안되나 싶기도 하고, 아직 멀었구나 싶어서 힘들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1기 선배님을 무작정 찾아가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단체에 찾아가 자료를 받아오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절반 정도는 성공한 것 같다.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혼자 머릿속으로 <2기 인터뷰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30명, 2기들의 사무실을 급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끝났다. 하지만 늘 궁금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왜 여기에 오려고 했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많다. 그리고 아직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 마지막 수업 날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훌쩍 지나가버린 6개월의 시간,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래서 언제나 다시 시작이다.

“지식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는 실천의 씨앗이 된다”

정홍채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부장

‘변화’란 항상 내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는 단어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이 모든 과정은 나 자신에게 다가서는 방법을 찾고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나를 더욱 더 잘 발견 할 수 있었다.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조별 토론 중 참여자, 관찰자,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더욱 더 잘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한 걸음 더 스스로를 직면하게 되는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한다. 또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로 인하여 나와 타인을 더욱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끄럽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참여하면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것 같다.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은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싶은 책이다. 지금은 폴 스미스 ‘스토리로 리드하라’를 읽고 있지만 이제는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제목에서 설명하였지만 지식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는 실천의 씨앗이 된다는 말처럼 이제는 앓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경험을 근거로 실천을 이야기 하였다면 이제는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실천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조직에 몸담고 있기에 팀원과 구성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더불어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한다.

바람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경험의 기회가 나에게 오길 기다린다. 그 기회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나를 인도할 테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

조영금
사회연대은행 팀장

따뜻했던 6월, 다양한 30명의 비영리 분야 사람들이 모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처음 들어보는 캡스톤. 오리엔테이션에서조차 ‘이게 뭐지? 어떻게 진행하려 하는 거지?’하는 물음 속에 ‘한 번 해보지 뭐’로 결론짓고 과정을 경험해보기로 했었고, 지금은 소중한 경험이 되어 관계 속에서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리더십 모듈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뒤돌아볼 수 있었고,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사회혁신 모듈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있던 부분에 대해 골고루 배울 수 있어 좋았다.

하루에 한 번 뽀뽀하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야간 대학원 같다고 느끼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지?’를 몇 번은 생각했었던 것 같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덜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끼웠더니 세 바퀴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했고 서로에 대한 지원도 필요로 했다. 다행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과정을 수강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를 해주어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조를 이룬 조원들의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있었기에 무난하게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과정을 통해 리더십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임을 새삼 느꼈고, 기관에서 대표 또는 부서장들의 역할이 정말 쉽지 않음을, 그리고 정말 외로운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윗 분들에 대한 뒷담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직원들과 쉽게 불평하곤 했던 얘기들이 조직과 내 자신에 대한 발전도 없을뿐더러 후배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느끼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렇게 뭔가를 조금 조금 느껴가며 반 년을 보냈다. 힘든 과정을 함께 한 동기들과 전우애(?) 비슷한 것도 느끼면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조중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팀장

2014년 6월 18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첫 등교.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슴 벅찼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2년간 비영리분야에서 묵묵히 일만 해온 나로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모습에 매번 스스로 실망하기 일쑤였다. 내가 이 분야 지식만 갖추었더라면, 내가 저 분야 사람들과 네트워크만 갖추었더라면, 하는 반복된 아쉬움에 한숨만 커져갔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맘 같지 않아 최근 몇 년 간은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한 층 높여줄 선물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하고 세세한 커리큘럼에 출중한 강사진, 해외방문연구조사 지원까지, 비영리 분야 종사자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전문적이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초반에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환경적 변화가 일어 한 동안 내 몸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듯 하였다. 1주일마다 돌아오는 교육일정, 엄격한 출결관리, 하루 8시간의 마라톤 수강, 생소한 캡스톤 활동, 그리고 난이도 높은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과 사회혁신 교육, 한마디로 변화된 생활패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다. 특히, 매 강의 후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해 보는 캡스톤은 과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문제의 이해단계부터 해매기 시작했다. 마음만 비우고 배우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6개월 과정은 거짓말처럼 빨리 지나갔고, 나를 포함한 모든 수강생들이 견뎌냈다. 교육은 어려웠고 조별활동은 힘들었지만 아산나눔재단의 든든하고 적극적인 지원 속에 모두가 웃을 수 있었다. 4개월차부터는 그간 배워온 체계적인 리더십과 인적자원 강의를 되새기며, 교육일정 중에서도 실전에 적용하는 여유까지 생겼다.

중간관리자 단계까지 올라선 나로서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난 12년의 활동을 반성하고 진단할 수 있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전체 인생 중 짧은 시기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좀 더 단단히 성장했고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같은 비영리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아산나눔재단의 열정적인 관심과 지원에 박수를 보낸다. 작은 시작이지만, 향후에는 비영리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식구가 되어 전문역량을 갖추고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맹활약을 하리라 기대한다. 나 또한 먼 훗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선배 기수이자 청소년 분야의 수장으로서 활약할 모습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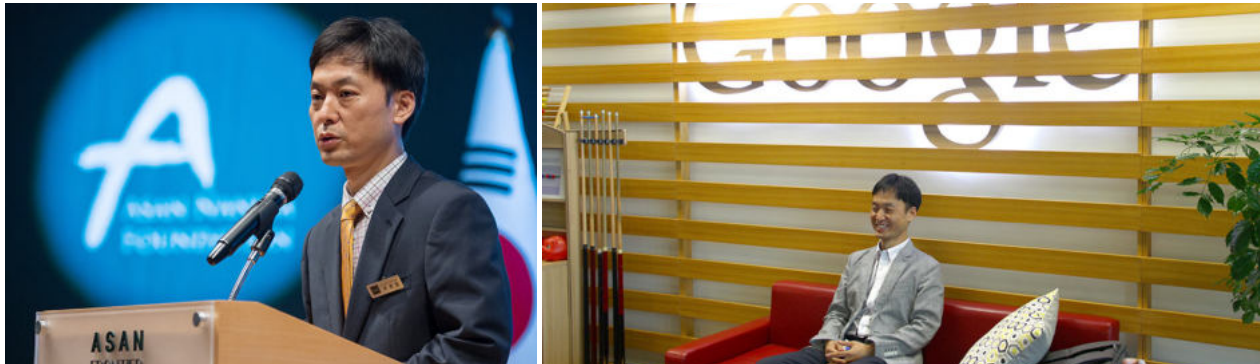
“나의 경험을 집대성하는 기회, 그리고 비영리 분야의 미래에 대한 희망”

주종범
기아대책 팀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지원할 때 제일 처음 고민해야 했던 것은 지금 사회에서 혁신하고 싶은 주제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세계의 젊은 청년들을 유학이나 단기봉사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원들을 현지사회 특별히 제 3세계에 정착하게 하고자 하는 그간의 고민이 담긴 에세이를 내며 프론티어 과정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그간 국제개발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속한 기아대책, 이름 그대로 투박하고 절실하게 십여 년간 그야말로 열정과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전 세계의 굶주림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전력을 다했지만 바닷물에 돌 하나 던지고 만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동료들, 후원자들, 그리고 수혜자들이 포함된 공동체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아대책에서 숨가쁘게 십여 년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았던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도전이었다. 모금, 사업기획, 대외협력, 교육훈련, 홍보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이 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보고 싶었고, 아카데미 교육이 바로 이를 집대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비영리 기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혁신과 인적자원, 마케팅·모금과 재무·회계, 리더십 모듈 등을 더하여 가상 기관을 설립하는 6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를 넘어서 끝나는 수업 그리고 주말이나 따로 평일에 조모임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강행군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당연한 희생의 시간이었으며, 가족들의 넓은 이해와 든든한 지지가 필요했다.

수업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다양한 비영리 분야에서 온 30명의 리더들을 보며 저절로 배워지는 것과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들의 헌신과 섬김은 그야말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참신한 캡스톤의 문제해결 방식은 기아대책에서 전세계에 파견하는 기아봉사단의 교육훈련방식에도 도입해보고자 하고 있다.

단순하게 해외연수라 생각했던, 그야말로 약간의 보너스가 아닐까 싶었던 해외방문연구조사 또한 많은 리서치와 준비를 필요로 했다. 현장에서 접했던 선진국의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본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의식이 비영리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다시 의미 있는 결과들로 연결되어 시민들과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함께 동행한 우리 4조 안종권 선생님, 양선희 선생님, 최승희 선생님, 조중훈 선생님, 최인에 선생님을 포함한 2기 동기들의 반짝거리는 눈을 보니 ‘우리나라 비영리 분야도 선진국의 수준을 금방 따라잡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진행형...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최승희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나는 일을 해야 하는 현장을 찾을 때면 언제나 가슴이 뛴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져서 이기도 하고, 낯섦이 익숙함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도 들고 실수로 인한 자책도 하지만 ‘안 하는 것 보다는 좋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일을 찾게 된다. 아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할 때도 그랬던 것 같다. 개인과 사회,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객기 어린 다짐과 늘 그랬듯이 새로운 일을 찾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욕심에 지원을 결심했었다.

6개월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현장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과의 만남과 비영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들과의 만남은 나의 고민과 해결방식이 참 작고, 어리다는 점을 인정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때로는 그 인정이 너무 솔직해서 헛웃음이 나기도 해 아닌 척도 해보고, 정말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스스로에게 화를 내보기도 했었다. 그런데, 문제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는 것처럼 힘들기만 했던 여러 문제들도 수료를 앞두고 있는 요즘 나에게 답을 보여주는 것 같다. 나의 역할보다는 우리의 역할이, 책임보다는 권한이, 결과보다는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지금 현장에서의 실천과 결정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지게 되었다. 그리고 따끔거리기도 하고 한 없이 포근하기도 했던 캡스톤 과정을 통해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내게 주어지는 만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몸과 마음에 다시 익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함께 해준 팀 동료들과 든든한 후원자였던 재단의 많은 분들 덕분에 도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믿고 응원해준 철산복지관의 식구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고 늦은 시간 돌아오는 나를 항상 기다려주고 하루의 안부를 나누어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딸 서빈이, 내 인생의 멘토인 부모님 덕분에 아카데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제 아카데미의 과정은 끝나지만, 나에게 배움을 실천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 조금 더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청하며 살겠다.

마지막으로 가슴 뛰는 배움의 과정을 허락해주신 아산나눔재단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할 여유를 선물 받다”

최윤정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사무처장

2박 3일의 워크숍, 새로운 공간, 친절한 실무진들,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들에서 온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다. 23년 동안 빈민지역에서 활동한 탓에 웬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했고,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 역시 어색했다.

매주 수요일 수업에 참여하면서 캡스톤 수업은 끝나는 날까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처음의 각오와는 다르게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열정적으로 강의 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리더십 강의에서 만난 젊은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나의 활동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적응은 되는 것인지 혹은 적응하는 것이 맞는지 늘 고민하게 했고,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웠던 내용들은 제 머리 속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사라져버렸다. 머리 속에는 수업의 내용보다 수업을 통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만 남아있다. 수업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재산으로 남았다.



신기했고 황홀했다. 또한 화려하게만 보였던 그 나라에서도 그늘진 곳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정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왠지 친근감이 들곤 했다.

6개월 동안 판 세상에 갔다 온 느낌이다. 그 느낌이 어쩔 나에게 앞으로 다른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내 자신이 30년간 활동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 왔기 때문에 편협할 수도 있다는 것, 사람들은 나의 기준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비영리 분야의 활동이 여러 방면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는 것 등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세상을 다른 쪽에서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해주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개월의 시간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며 더 많은 꿈을 꾸게 만들 것이다. 이 시간들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얹’에서 ‘가치’로 가는 길”

최인애
비전케어 팀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일찌감치 비영리 활동가로서 현장에 뛰어들어 배움보다는 경험으로 버텨온 나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탁월한 배움의 장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거니와 지원 기준의 턱걸이로 아카데미에 입성을 하게 되어 한없이 높은 선배 활동가 분들을 만나 함께 배움을 한다는 것이 도전이자 기회였다. 특별히 국내 네트워크에 취약했던 나에게 너무 국내 활동가 분들과의 만남은 또 다른 영역의 지평을 여는 시간이 되었다.

6개월의 공부를 하면서 오랜만에 시작한 공부에 낯설기도, 힘들기도 했지만 함께 하는 분들과의 역동성이 나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되었다. 아무리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을 통한 가르침이라 하였지만 결국 모든 가르침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가름되는 것 같다. 나 혼자였더라면 스쳐버렸을 내용이지만 그룹 활동을 통해 함께 배운 내용을 같이 점검하고 되새기면서 놓쳤던 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고 한 층 더 탄탄하게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배우며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것 같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회 활동가들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수님들의 수업은 '얹'이상의 것을 전달해주었고, 함께 배우는 분들을 통해 모든 배움을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말 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난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떨어지는 정답과 지침서 보다는 함께 상황을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역동성이었던 것 같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다.

내가 위치한 자리와 상황이 모두 나로 인한 것임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모든 배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최장열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단장

지난 6월 1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개월간 달려왔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제2기 과정이 이제 수료식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 동안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까지 6개 모듈과 이를 종합하는 캡스톤 프로젝트까지... 돌이켜보면 사고로 듣지 못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열심히 수업에 임한 경험이었다. 3조 조원 5명을 비롯한 2기생 29 명과의 낯선 만남이 이제는 익숙해 졌고, 아산나눔재단 스태프 및 담당 모듈 교수님들과의 앓의 관계는 덤으로 주어졌다.

한국 나이 45세로 인생의 후반기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시기 적절한 교육이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의 다양함을 알게 되고, 양보하는 법과 쟁취(?)하는 법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줄다리기 기법까지... 비록 지금 내가 속해있는 인천광역시의 처지와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사회복지계가 순탄하지 않지만 인생의 후반기를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보내야겠다는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이 또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나에게 준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이라는 것이 결국 끊임 없는 고민과 소통, 합의를 통한 결정의 과정이고 선택의 과정이란 생각이 든다. 지난 20년간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나를 되돌아 보면 그 동안 참 치열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여유를 찾고 싶다. 해외방문연구조사를 수행하면서 보고 느꼈던 영국과 프랑스의 삶을 보며 참 여유가 있다고 생각 되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여유,



주위의 환경과 어울리고 즐길 줄 아는 여유... 그 여유가 정말 부러웠다. 나도 이제는 좀 더 여유로운 인생, 여유로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마냥 여유를 찾기에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냉엄하다. 당장은 눈 앞에 닥친 현실을 헤쳐나가기 급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티를 내지 않고 세상을 초연한 고수의 삶을 살고 싶다.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남과 같은 다르든, 다만 마땅함을 좇아 행하되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살고 싶다.

꿈이 생겼다. 해외가 되었든지 시골이 되었든지 갑갑한 도시를 떠나 살고 싶은 꿈. 2015년도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해이다. 지금 보다 더욱 여유를 가지고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드는 원년이 2015년이 되길 희망해 본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내 인생 후반기의 꿈을 품어주었으니, 이제는 내 몫이다. 서서히 그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다.

“2014년 크리스마스 선물”

허수경

무지개청소년센터 팀장

올해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한 편으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는 일들이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 업무의 전문성을 배양해 줄 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있던 중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선배의 추천으로 이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추천한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육과정이니 꼭 신청하라고 하면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겁이 나긴 했었다. 역시 예상대로 수업은 말 그대로 뻥센(?) 과정이었다. 가끔은 일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기조차 버거운 적도 있었고 일이 많을 때에는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또한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당연히 교재를 읽어오는 것은 무리였고 특히 캡스톤 과제와 팀 프로젝트 과정은 나를 너무 괴롭혔다. 웬만한 대학원 과정보다도 힘든 이 과정을 다 수료할 수 있을까? 직장 일은 직장 일대로 쌓여가고 나의 무능함에 또 한 번 좌절하기도 하였다.

성격상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꼭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보다는 의무적으로 하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회기마다 진행되는 리플렉션 메모에 생각을 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정리되어 글이 되는 과정과 나의 발전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였다. 내가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했던가? 싶을 정도로 매사에 질문을 하는 버릇이 생겼고,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정말 많은 배움을 주었다. 기존의 생각이나 경험을 초월한 리더십, 사회혁신,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분야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를 관찰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새롭고 신기할 뿐이었다.

특히 캡스톤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들어본 교육 중에 가장 생소하지만 또 가장 신선하고 훌륭했다. 그 느낌은 해외방문연구조사를 다녀와서 피부로 다가왔다. 해외기관을 조사하면서 쉽게만 생각했던 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세계적인 비영리 기관들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과거와 잘 화해할 수 있게 성찰을 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도 변화하였다. 또한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다양한 비영리 기관의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격려가 되고, 같은 영역에서 고민을 나누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도 나에게 큰 선물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배움과 함께 성찰을 주었다. 첫 번째는 조직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고민과 부족한 경영마인드나 지식에 대한 배움이었다. 두 번째는 훌륭한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훌륭한 리더는 또 누구에게는 훌륭한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동기부여를 가지게 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2014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힐링이었으며, 나를 눈뜨게 해준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아카데미와 우연한 만남, 필연이 되어버린 인연”

홍은영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장

3월말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네, 홍부장이 먼저 가서 배워. 다음에 내가 갈게. 한 번 해 봐” 라며 건네주신 공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업무와 병행하면서 에세이와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좀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기관의 지지를 받아서 지원하고, 1차 서류통과, 2차 면접 후 발표를 기다리며 오랜만에 설레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무척 높았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다양한 과정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과정은 캡스톤과 리더십이었다. 다른 모듈을 기반으로 한 캡스톤은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였고, 리더십 과정은 계속 ‘나’부터 변화하라는 숙제를 주었다.

6개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한 동기들, 조 과제를 위해 수업시간 외에도 시간을 내어 주말에도 만난 우리 조원들이 있었기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더 즐거운 과정이었다.



아동, 청소년, 모금기관 등 사회복지와 그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동기들에게서 타 분야에 대해 배우고, 전문지식으로 도움을 받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은 목적을 가졌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6월의 '나'와 12월의 '나'는 얼마나 변화했을까?



ASAN
FRONTIER
ACADEMY







The Asan Nanum Foundation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수료하시는
여러분께 올립니다.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이봉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원장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일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변화를 이루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바뀔은 필연이고 당위이지만

무엇이 왜 어떻게 어디로 또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이 어제보다 사람다움이 넉넉해지는

잔잔한 변화의 진동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염원이고

염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어제 웃지 못한 분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 때문에 웃을 수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는 행복한 날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정진홍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수강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업과 캡스톤, 그리고 해외방문연구조사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 중에 여러분들을 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 나누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비영리 분야의 역량은 결국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에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출발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비영리 분야 차세대 리더의 역량을 기르는 투자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영리 분야의 각 영역에서 그 투자의 열매가 무르익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영리 분야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비영리 분야의 역할은 이제 한 사회 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도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익히고, 경험하고, 나눈 것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역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혁신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수료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원장 이봉주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www.asan-nanum.org/frontier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